

### 社 說

#### 포천중문의과대학 미국 진출

포천중문의과대학 차병원 그룹이 미국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넘겨 받아 '포천'이라는 지명이 미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포천중문의과대학 차병원그룹은 지난 11일 오전 로스앤젤리스 유니온호텔 로즈룸에서 포천중문의과대학 설립자인 차광렬박사가 미국 데넛그룹의 에릭 터그먼 부회장과 킨 오브 에인절스 할리우드 장르 병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포천중문의과대학 차병원그룹은 이번 인수한 병원을 통해 불임시술과 생식의학 등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국내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줄기세포연구 관련 치료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아동과 여성을 비롯해 암·심장·노인질환 분야에서 첨

단의료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병원을 만들고 동서 의학의 접목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본이 미국 종합병원을 인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불임 치료와 생식·내분비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한국 의료기술을 역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포천시의 이미지가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민 모두가 환원할만한 일이며 축하해 줄 일이다.

이번 포천중문의과대학의 미국 진출로 '포천'이 무슨 뜻이냐는 미국 사람들의 질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기회에 포천시는 포천의 이미지를 포천중문의과대학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바이다.

#### 포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포천시는 지난 11일 항후 및 십년간 포천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도시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도시계획(안)은 포천시가 3억4천만이라는 예산을 들여 경호연지나어리에 의뢰하여 마련됐다. 이 계획(안)은 지난 11일 공청회에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4월 중 최종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 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환경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계획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천민원아트홀 대극장에서 마련된 공청회는 포천시 발전 계획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안)을 설

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이 끝나자 참석했던 시민 1/3이 자리를 떠났다. 자리를 떠나는 시민들은 '모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시 관계자 및 시의회의원들까지도 대부분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더욱 아쉬웠던 점이다.

한편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에는 질문도, 답변도 없어 무색할 정도였다.

이날 공청회의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워했다.

도시철도유치나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 포천시 발전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지 않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주민 공람 기간동안 시민들이 요구하는 포천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포천시의회 李中孝 행정자치위원장에게 듣는다

## “역사와 전통을 담보한 독창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 “서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제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등 10개과 소관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포천시 군내면 출신 2선의원인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효(46·사진)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무위원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다며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2년간 이끌어온 이 위원장은 “소신 있고 섬세하게 꼼꼼한 스타일” 때문에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들의 인정을 받아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천시 공직사회에 대해 주관적 견해지만 경직돼 있으며 수동적이라고 꼬집는다. 유연성이 부족하고 탄력적이지 못하여 조직기능이 나후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장질문을 하면 경직된 조직의 틀 속에서 움직이려는 타성에 젖어 있

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公僕”은 ‘시민의 머슴’으로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최근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움직이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 위원장은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점에서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고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청소년기에 시와 수필, 소설 등을 공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포천시에 역사와 전통을 담보한 독창적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현실과 역사를 무시한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요식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시 사회복지 업무를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 감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양문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민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양문공단에 입주한 업체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문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양문공단으로 이전한 무허가업체가 운영되던 자리에 다른 무허가 업체가 입주하여 또다시 오염을 가중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여 양문공단으로 이전했던 업체 3곳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관리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위원장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열세가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한무역관 자문강의를 통해



이종효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황에 힘을 때 일수록 용기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포천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정론으로서 언론의 참 기능과 포천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늘 공부하는 의원, 현장감 있는 시정질문으로 포천시민의 열세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위원장은 앞으로 도 참 일꾼으로서 포천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이해찬 국무총리 “分道에 동감”

이해찬 국무총리가 경기분도에 동감을 표출했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분도 요구와 관련, “한수이북 경기도는 분단상황에서 여러 군사규제를 받았고, 상수원 보호규제도 받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분도해서 독립

할 것이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의회 결정도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기 남부와 북부의 연관성은 많은 차이가 있다. 남부는 공업지구로서, 북쪽은 주거지역으로 발전해 왔다”며 “경기도 자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1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의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 “포천의 뉴스는 우리가” 약속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김기호)은 11일 오전10시30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주부명예기자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발행인과 주부명예기자단 인사발령 이어 신임 주부명예기자단 9명에 대한 위촉식 및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는 현재 총무 1인으로 100명의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총무 2인을 선출하고 읍면동 지부장을 임명하여 지역책임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부총무는 최현민 매일신문 주부명예기자과 가산면 노훈식 주부명예기자과를 단장직으로 임명했다.

또한 각 읍면동지부장은 소출음에 이효정, 가산면 정선교, 내촌면 한희수, 영북면 김미경, 포천동 김연, 선단동 이정란 주부명예기자과 지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단 단원의 애경사는 단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주부명예기자들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역신문 주부명예기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효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낙후성 등으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에 관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 밝고 투명한 포천사회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기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발대식이후 3개월 동안 곁을마 단계지만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며 “좀더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통해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들은 “학부모의 최대관심은 자녀 교육문제이므로 포천신문이 교육문제에 보다 빠르고 보도를 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주부명예기자단원들의 분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혜매 7194spice@hanmail.net

## 정치활동 동향

- 이철우** 국회의원은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림부로부터 쌀협상동향 및 쌀 농가소득 보전방안 보고를 받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2005년도 예산안 및 농림부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 박윤국** 포천시장은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천시 가로수 기본계획운영 최종보고회”에 참석, 이번엔 마련되는 “가로수 식재체계 정립 및 관리개선 방안”을 토대로 가로수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은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모든 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인 농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신북면 대군정에서 열린 공도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에서 개최된 지역개발교 변화사항을 브리핑 받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 이상만** 경기도의회회원은 12~14일 제주도 파라다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발전세미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고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등 현안사항에 관해 토의했다.
- 김영대**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17일 포천 용정체육관에서 개최된 포천시사격협회 창립식 및 취임식에 참석해 사격협회 창립과 조준법화장의 취임을 축하해주고 협회 일원 및 관계자들에게 사격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이천목**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17일 선단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등을 토의하고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김종용**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16일 의회의원 및 각 실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04년 용역과제 심의안건 심사에 참석하여 총 21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3개의 안건을 재검토 또는 조건부 승인했다.
- 유성현**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16일 지난 16일 신북면 덕동리의 대군정에서 개최된 제1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공도대회에 참석해 용호정과 동부정, 국사정, 대군정의 대회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경기분도에 “한수이북 경기도는 분단상황에서 여러 규제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동감한다”고 말했다.

## 의원 칼럼

### 대화는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믿는 한 우리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야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를 여, 또는 야로 선택해 준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경쟁하라고 뿔어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사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권력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계는 모두 시장경제를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색깔론을 말한다 면 그 순간 경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해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하기보다는 첫 국회활동을 통해 국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의 의미는 감사에도 있지만 의원들이 정부를 배우고 국정현안들을 이해하는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는 많은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개월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 연합 집산 하지만 그것이 당의 분열이나 갈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대화의장이자 과거의 계파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모임들이 제가 정치하는

과정에 도움은 되어도 저를 강제할 수는 의원과 대화하고 국민과, 당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언론이나 호사자들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정치는 이런 것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대화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같은 당에 있더라도 생각이 다른 의원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주장하고 독정현안들을 관료출신인 법조인인 아무런 구애 없이 만나고 허심탄화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바른 몸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듣고 내가 가진 생각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라 생각합니다.

장성 출신도 기업인 출신도 제가 갖지 못한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평범한 사실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화하고 상상하고 하는데 진정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풍토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득 공허한 국회 본회의장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가슴은 저렇게 텅 비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평가는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3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맑고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장인화)가 지난 11일 오후6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상시운영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임원조정 건과 조사위원 300명 확보방안의 건, 송년 및 준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장인화 포천신문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점차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효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조사위원회가 포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가 필요하다”며 “오늘 조사위원회 임원회의를 통해 조사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버스 승강장 질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시민의식 제고와 버스 기사 배려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도 벌여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김종현 고문은 “불우이웃돕기 창구 상시개설로 보다 실질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데 포천신문 조사위원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음회의는 오는 12월17일 용정웨딩홀에서 개최되는 2004송년의 밤에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편집국 (031)542-9776  
기사제보 (031)542-9888  
광고접수 (031)542-9889  
구독신청 (031)541-9115  
FAX (031)541-911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효열  
편집인 구봉주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